

이병주의 희곡 텍스트 「流氓」 연구

민 병 욱*

차 례

- | | |
|----------------------|-----------------|
| 1. 문제의 제기 | 3. 텍스트의 창작과 구조 |
| 2. 『文學』의 발간과 텍스트의 수록 | 4. 결론 및 앞으로의 문제 |

국문초록

본고는 선행 연구에서 그 제목만 언급된, 1959년 11월과 1959년 12월 『文學』에 (상), (중)으로 연재된 희곡 「유맹」의 자료를 발굴하고 그 구조를 살펴보았다.

먼저 텍스트가 수록된 『文學』의 발간은 ‘젊은 세대를 위한 젊은 세대에 의한 젊은이’의 문학잡지를 지향하고자 『新潮文學』의 정신을 이어받고 서울에서 발간된다. 서울에서 발간하면서 『文學』은 새로운 기법과 고도의 비평정신이 필요한 젊은 세대 문인들에게 문학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회화, 연극 등 모든 예술의 분야를 위해 예술 각 분야에 걸친 신예들의 무게 있는 작품들의 소개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희곡 「流氓」을 수록하여 연재한다. 그 발간 정신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과 남북 분단을 경험한 원로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문학 내외적 영역의 확장에,

* 부산대학교 교수

『文學』의 ‘젊은 세대를 위한 젊은 세대에 의한 젊은이’의 문학잡지가 끼어들 틈이 없음은 물론이다. 문학(문단) 상황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기성 주도세력으로서의 편입이다. 기존 문학 매체들이 문학이념의 체계모니를 장악하고 문학 권력을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文學』은 자진 폐간하고 희곡 『流氓』은 미완의 텍스트로 남게 된다.

미완의 희곡 『流氓』은 이병주가 1945년 9월과 1946년 3월 사이 상해에서 창작한 최초의 희곡작품이며, 그 내용은 아편과 도박을 중심으로 한 소비 향락지역인 상해공공조계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러시아 가족들과 하숙생들, 일본 헌병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사건을 텍스트는 청춘남녀의 개인적인 사건과 항일운동의 참여/거부에 관련된 동시대 사회적 사건을 기본 축으로 하여 서로 얽혀 있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 애정사건과 동시대적 사회사건이 지배적 줄거리로 진행되다가 서로 얽히는 사건전개는 이병주의 문학세계, 특히 소설텍스트의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희곡의 일반적인 구성과 달리 텍스트는 중심적인 것은 사건의 전체적 전개가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 가는 인물의 형상화이며, 사건 중심적인 구조가 아니라 인물 중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희곡 『流氓』은 사건 구조 보다는 형상화된 인물에 초점을 두고 창작된 것으로서 그의 소설텍스트의 기본 사건 구조를 이루고 있는 창작방법의 출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文學』의 폐간으로 사라진 희곡 『流氓』(하)를 찾아서 텍스트를 복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텍스트의 전체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연구는 불가능하다.

주제어 : 이병주, 정상구, 희곡 유맹(流氓), 문학(文學) 신조문학(新潮文學), 부산, 서울, 상해, 1955년, 1959년, 한국자유문학자협회, 한국문화총연합회, 현대문학, 자유문학

1. 문제의 제기

이병주 문학에 관한 선행 연구¹⁾는 그의 소설에 한정되어 있다. 그 가운데 희곡작품 「流氓」²⁾에 관하여 언급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같다.

- ① 소설가로 전신하기 이전에 이병주는 이미 문학작품을 창작한 바 있는데, 「유맹(流氓)」이 바로 그것이다. (...중략...) 희곡 창작이 어떻게 보면 이병주의 첫 문학 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희곡 혹은 연극에 대한 관심은 그가 연극 '살로메'를 연출했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³⁾
- ② 소설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65년 「소설 알렉산드리아」를 『세대』에 발표한 이후부터인 까닭에 많은 연구자들이 그의 등단 시기를 이 때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1957년 8월 1일부터 1958년 2월 25일까지 부산일보에 「내일 없는 그날」을 연재했으며, 1959년 11월호 『문학』에 희곡 「유맹」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병주는 창작 활동을 시작한 이후 1992년 서울에서 타계할 때까지 80여 편의 소설을 발표했고 그 외에도 많은 수필과 사설을 남겼다.⁴⁾

선행 연구도 그의 소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서론의 '연구 방법 및 범위(①)'와 '각주(②)'로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치고 있다. 아울러 ①은 각주에서 「유맹(流氓)-나라를 잃은 사람들」은 『文學』에 1959년 11월과

1) 그의 문학에 관한 선행 연구를 한국학술정보원(<http://www.riss.kr/index.do>)에서 '이병주', '소설'을 키워드로 하면 학위논문 12편, 국내학술지 67편이 검색된다. 그의 생애와 문학적 생애(이병주문학관 홈페이지 <http://narim.or.kr>)에 비추어 본다면 선행 연구는 적어도 양적으로는 대단히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2) 희곡작품과 잡지 『文學』은 이순욱 교수(부산대 국어교육과)가 제공해 준 것이다.

3) 노현주, 『이병주 소설의 정치의식과 대중성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2, 21-22쪽.

4) 추선진, 「이병주 소설의 원형으로서의 『내일 없는 그날』」, 『인문학연구』(21권),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262쪽.

12월에 실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잡지의 12월호가 남아 있지 않은 관계로 상(上)편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언급하여 ②와 같이 1959년 11월호 『文學』에 희곡 「유맹」이 발표된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1959년 11월에서 1960년 1월 잡지 『文學』에 수록된 희곡텍스트 「流氓」의 창작 배경과 구조를 다음과 같은 의문점으로 풀어보고자 한다.⁵⁾

첫째, 당시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지부장인 정상구가 잡지 『文學』을 서울에서 발간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당시 국제신문 주필인 이병주가 2년 전 부산일보에 소설 「내일 없는 그날」(1957년 8월 1일부터 1958년 2월 25일까지)을 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발간되는 문학 매체에 희곡 작품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텍스트가 “해방 직후 상해에서 쓴 작품인데 그대로 버리기엔 아깝다는 친구의 권에 의하여 발표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병주가 작품을 창작한 배경과 그 구조는 무엇인가?

2. 『文學』의 발간과 텍스트의 수록

1) 『新潮文學』의 폐간과 『文學』의 발간

텍스트를 수록한 『文學』은 당시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지부장인 정상구가 서울에서 1959년 발간한 문학 전문지이다. 1년 전 그는 1958년 5월과 9월 『新潮文學』⁶⁾ 제 1, 2호를 부산 신조문학사에서 발행 편집인

5) 단 본고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문학』의 제1, 2호(1959년 11, 12월)이므로 작품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다음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6) 『新潮文學』의 폐간은 1958년 9월 제 2호에서 이루어진다. ‘당초 격월간이었으나 5집까지 간행되었다’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순욱은 제 2호의 「편집후기」를 근거로 하여 잡지의 폐간을 1958년 9월로 확정하고 있다.

이순욱, 「1950년대 정상구의 문학 활동」, 『문학도시』(통권 42호, 2005년 가을호),

으로 발간을 했었다.

문제는 그가 1958년 부산지역에서 유일한 문학 전문 매체 『新潮文學』을 폐간하고 1959년 서울에서 『文學』을 발행한 이유이다. 그 이유는 창간사와 편집후기 형식의 글에서 확인된다.

- ① 여기에 있어 『新潮文學』은 고도의 비평정신과 다채로운 기법의 새로운 무장으로 젊은 세대를 위한 젊은 세대에 의한 젊은이의 문학잡지가 되고자한다.⁷⁾
- ② 새로운 기법과 고도의 비평 정신을 갖춘 젊은 세대가 필요하다.
(…) 이제 한국문학의 모든 과제를 짊어지고 이 정리기, 이 전환기 위에서 탄생되는 『文學』 …⁸⁾

「편집후기」 ①과 ②에서 본다면 『新潮文學』과 『文學』의 발간은 ‘젊은 세대를 위한 젊은 세대에 의한 젊은이’의 문학잡지를 지향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新潮文學』의 폐간과 『文學』의 발간은 부산에서의 실패와 서울에서의 재도전을 뜻한다. 문학잡지가 ‘편집자, 집필자, 독자들의 노력으로 발행되기 때문’⁹⁾에 그는 서울로 발행처를 옮긴다. 그러나 발행처를 서울로 옮긴 『文學』은 1959년 11월에서 1960년 1월까지 통권 3호를 발간한다.

2) 『文學』의 발간과 텍스트의 수록

부산에서 간행한 『新潮文學』을 폐간하고 서울에서 『文學』을 발간하면서 발행인 정상구는 그 창간사와 편집 후기에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부산광역시문인협회, 2005.9, 77쪽.

7) 「편집을 마치고」, 『新潮文學』 제 1호, 부산: 신조문학사, 1958.5, 120쪽.

8) 「편집후기」, 『文學』 제 1호, 서울: 문학사, 1959.10, 11쪽.

9) 「편집후기」, 『新潮文學』 제 2호, 부산: 신조문학사, 1958.9, 116쪽.

- ① 이 조그마한 문학잡지는 고민하는 젊은 세대들 앞에 자유로이 펼쳐진 활주로의 구실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 대담한 혁신을 꾀하면서도 실천할 수 있는 마당을 갖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 잡지 『文學』은 자유의 향연장이고자 한다.¹⁰⁾
- ② 새로운 기법과 고도의 비평정신을 갖춘 젊은 세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기성세대와 「영거어·제네레순」- 각기 체질을 달리 하는 이 두 개의 행렬 가운데서 또 다른 시안을 모색할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초라한 문학사를 정리하고, 침체의 소인을 제거해야 한다.¹¹⁾

①과 ②에서와 같이 잡지의 창간호에는 「신세대작가에 기함」(김팔봉), 「젊은 시인에게」(서정주), 「현대시론」(조향), 「현대한국문학의 과제」(정상구), 「프랑스 문학비평 서설」(박이문), 「현대한국문학의 배경」(김우중), 「현실 참여의 위치」(이인석), 「서구문학의 죄의식」(김용권), 「20세기 연극의 경향」(김정옥)을 특집으로 기획한다. ‘젊은 세대에게 활주로를 펼쳐주기 위해’ 기획된 특집은 신구세대가 결합되어 있다.

구세대에는 김팔봉(1903~1985), 서정주(1915~2000), 조향(1917~1985), 신세대에는 박이문(1930~), 김우중(1929~), 이인석(?), 김용권(1930~), 김정옥(1932~)이 있다. 구세대 필진들, 이를테면 1959년 당시 한국자유문학자협회 대표 및 기관지 『자유문학』의 발행인 김팔봉, 한국문학가협회 최고위원 서정주 등 구세대 ‘반공으로 친일을 덮는 논리를 주장한 이승만 정권과의 연관 관계에서 남한 반공문예조직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를 결성한 실질적인 문단권력자들¹²⁾이다. 반면 신세대 필진들, 박이문은 1955년 시 「회화를 잃은 세대」로 『사상계』에 당선된 신진 시인이면

10) 「<창간의 말> 젊은 세대의 활주로」, 『文學』(창간호), 서울, 문학사, 1959.10, 10~11쪽.

11) 「편집을 마치고」, 앞의 책, 20쪽.

12) 남원진, 「반공국가의 법적 장치와 <예술원>의 성립 과정 연구」, 『겨레어문학』(38권), 겨레어문학회, 2007, 214쪽.

서 불문학자, 김우중은 1957년 3월 「은유법 논고」로 『현대문학』에 평론을 추천받은 신진 문학평론가, 김용권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1959년 무렵까지 영미문학의 번역과 비평 활동을 한 신진 번역자이면서 문학비평가, 김정옥은 1959년 프랑스 소르본대학 영화학 연구소에서 귀국하고 시 「오후」로 『사상계』 신인현상문예에 당선된 신진 시인이며 연출가였다. 곧 신세대 필진들은 외국문학 전공자이면서 신진 시인, 문학비평가 연출가 등이다. 이러한 필진들이 ‘새로운 기법과 고도의 비평정신’이 필요한 『文學』의 젊은 세대와 젊은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서구문학일 것이다. 신세대의 이러한 참여와 더불어 신예 시인, 소설가, 비평가들, 예컨대 김남조, 문덕수, 선우휘, 이철범, 이호철, 전봉건 등이 참여한다.

신예들의 참여는 제 2호에서 ‘문학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회화, 연극 등 모든 예술의 분야를 위해’서 ‘예술 각 분야에 걸친 신예들의 무게 있는 작품들의 소개’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제 1호의 편집 체제- 비평, 시, 소설, 수필의 편집 체제를 그대로 이어 받으면서 이병주의 회곡 「流氓」을 모든 예술 가운데 ‘연극 예술의 분야에 걸친 신예들의 무게 있는 작품’으로 연재하는 것¹³⁾이다.

13) 이병주의 회곡 「流氓」(상)에서 그는 작품의 서두에 ‘해방 직후 상해에서 쓴 작품인데 그대로 버리기엔 아깝다는 친구의 권에 의하여 발표한다.’고 적고 있다. 이런 겸양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가 회곡 작품을 연재한 것은 부산지역문학사에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는 1956년 마산에 거주하면서 1957년 『부산일보』에 소설 「내일 없는 그날」(1957.8.1.~1958.2.5.)을 연재한다. 감옥의 수감 기간을 제외하면 1958년 『국제신문』 논설위원을 시작으로 1967년 사퇴할 때까지 부산에서 거주한다. 곧 1959년 전후하여 그는 소설 「내일 없는 그날」을 연재하고 책으로 발간한 소설가이면서 『국제신문』 논설위원이었으며 정상구는 한국문화예술총단체 부산지부장이었다. 이러한 관계에서 본다면 이병주와 정상구 간의 관계는 당시 부산지역 문단에서 친교의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文學』의 폐간과 미완의 텍스트

젊은 세대의 문학을 모든 예술의 분야로 확산시키고자 수록한 이병주의 희곡 『流氓』은 『文學』의 폐간으로 미완의 텍스트가 된다. 『文學』 2호에 (상), 3호에 (중)이 수록되었지만 3호의 폐간으로 텍스트는 (하)가 배제된 미완의 텍스트가 된다.

폐간은 『文學』이 ‘젊은이의 문학잡지’로서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지가 문제이다.

『文學』의 폐간은 그가 당시 서울지역 문학매체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959년 무렵 서울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학 매체는 『현대문학』(1955년 1월~현재)과 『자유문학』(1956.6~1963.4)이다. 『현대문학』은 조연현 주간, 오영수 편집장 체제로 발간된 반면, 『자유문학』은 한국자유문학자협회의 기관지로 출발했다가 자유문학사로 독립하여 김광섭 발행, 이현구, 모운숙 편집으로 발간된다. 1955년 무렵 대중잡지, 종합교양지, 신문 매체에서 시행한 문학 중심의 편집체제(신인 추천제, 문학상 시상 제도 등), 문학 중시 전략(문학 작품의 발표와 연재, 월평, 신춘문에 제도 등)에 힘입어 『현대문학』, 『자유문학』은 『문학예술』(1954.4~1957.12)과 함께 문학(문단) 권력을 확대 재생산하는 메카니즘¹⁴⁾이 된다. 그 결과 『현대문학』과 『자유문학』의 발간 세력들은 한국문학가협회(1949~1961)와 한국자유문학자협회(1955~1961)를 대표하면서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1962~현재)의 주도세력으로 자리 잡는다. 『현대문학』 및 『자유문학』과 그 주도세력들은 문학 매체를 통하여 이념의 대립 관계를 형성 지속시켜온 것이 아니라 반공이념의 재생산에 협력하면서 그 주도권 장악을 위하여 갈등한 것이다. 그 갈등은 신인 추천 제도를 운영하여 신진 문학인들을 대량 배출하는 인적 확장, 문학 자료의 발굴,

14) 이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상허학보』(제 30집), 2010.10, 397-454쪽.

아카데미즘의 수용과 문학비평의 전문화, 번역문학의 활성화 등을 통한 문학 영역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일제 강점과 남북 분단을 경험한 원로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문학 내외적 영역의 확장에, 『新潮文學』과 『文學』의 ‘젊은 세대를 위한 젊은 세대에 의한 젊은이’의 문학잡지가 끼어들 틈이 없음은 물론이다. 이럴 경우, 『文學』이 문학(문단) 상황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기성 주도세력으로의 편입이다. 기존 문학 매체들이 문학이념의 체계모니를 장악하고 문학 권력을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입은 오히려 불가능하다. 그 결과 통권 3호로서 『文學』은 자진 폐간¹⁵⁾할 수밖에 없다. 그 폐간으로 희곡 「流氓」은 미완의 텍스트로 남게 된다.

15) 물론 1959년 『文學』이 서울로 발행처를 옮기고도 폐간한 것은 발행인의 전기적 사실에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 발행인 정상구는 1959년 당시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지부장이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설립한 혜화중고등학교장이기도 했다. 관련 문헌 자료에 의하면 그의 문학 활동은 1959년 『文學』의 폐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 그의 문학 활동은, 폐간 이전에는 1947년 시인으로, 1953년 문학평론가로, 1958년 문학잡지 발행인으로, 폐간 이후에는 1960년 정치가로, 1965년 수필가로, 1979년 (서사)시인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활동에서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잡지의 발행처를 서울로 옮기고 『文學』이 폐간 되자마자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다. 그가 정치에 참여한 것은 1960년 『文學』의 폐간으로 인한 방향 전환이 아니라 문학 활동과 더불어 준비된 것이다. 1947년 부산에서 염주용이 발간한 『문예신문』에 시 「아침 바다」를 발표하여 문학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는 문예신문사에서 정치평론집 『인간에 도라가라』와 『생활창조의 길』을 상재한다. 그의 문학 활동은 정치 활동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며, 문학의 발행처를 서울로 옮기고 폐간하자마자 정치가의 길로 들어선 것도 이미 준비된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잡지 문학의 발행처를 서울로 옮긴 것도 그 준비된 과정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순옥, 「1950년대 정상구의 문학 활동」, 앞의 책, 67-8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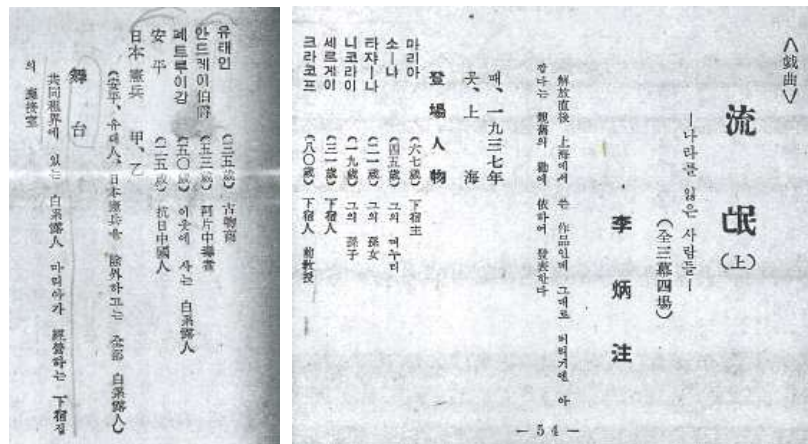
혜화학원 50년사 편찬위원회 엮음, 『혜화학원 50년사』, 부산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정상구 기념사업회, <http://www.ktra.co.kr/sub02/sub04.asp>

3. 텍스트의 창작과 구조

1) 부텍스트의 창작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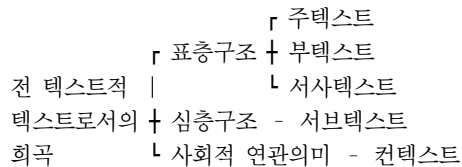
미완의 텍스트로 남아 있는 희곡 「流氓」은, ‘제목+부제+극작가명+시간 공간표지+등장인물표+무대지시문+대사’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우선 ‘제목+부제+극작가명’의 층위는 부텍스트¹⁶⁾로서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첫째, 장르의 층위에서 본다면 텍스트는 희곡이다.

둘째, 제목은 「流氓」이며, 부제는 ‘나라를 사람들’이다. 곧 제목과 부제

16) 희곡텍스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민병욱, 『현대희곡론』, 삼영사, 2003, 31쪽.

가 관객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나라를 잃은 사람들’의 삶이나 관련 사건이 텍스트의 주된 줄거리 구조라는 것이다.

셋째, 장막 표지에서 보면 텍스트의 “전 3막 4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텍스트 연재 부분	막과 장	수록 사항
(상)	제 1 막 제 1장	『文學』 2, 1959.11, 54~65쪽
(중)	제 2 막 제 1, 2장	『文學』 3, 1959.12, 106~123쪽
(하)	(제 3 막 제 1장)	(『文學』 3의 폐간으로 없는 부분)

넷째, 극작가는 이병주이다. 1957년 『부산일보』에 소설 「내일 없는 그 날」을 연재하고 1959년 그 연재를 동명의 소설집으로 엮어서 발간한 소설가로서 이병주가 독자들에게 극작가로서 첫 작품을 발표한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해방 직후 상해에서 쓴 작품인데 그대로 버리기엔 아깝다는 친구의 권에 의하여 발표한다.’는 제시는 텍스트의 창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관련된 전기적 정보¹⁷⁾를 찾아보면, 그는 1944년 학병을 지원하여 대구의 제 20사단 제 80연대 통신대에 배치되었다가 신체검사 후 중국 소주(蘇州)의 제 60사단 치중대로 최종 배치된다. 이어 1945년 8·15 해방이 되자 그는 같은 해 9월 1일 현지에서 제대하여 6개월쯤 머물다가 1946년 3월(혹은 2월)에 부산으로 귀환하여 진주 농림학교 교사가 된다. 이러한 전기적 정보에서 본다면 텍스트는 1945년 9월과 1946년 3월 사이에 상해에서 창작된 작품이다.

여섯째, 시간과 공간 표지에서 본다면 텍스트는 ‘1937년 상해’를 극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를 장과 막의 표지에서 구체화 시켜서 본다면 다

17) 그의 전기적 정보는 다음의 논저를 참고로 하여 서술한 것이다.

이병주, 『虛妄과 眞實- 나의 文學的 遍歷』(下), 기린원, 1979, 89-90쪽.

정범준, 『작가의 탄생』, 실크 캐슬, 2009, 254-257쪽.

음과 같다.

막과 장		시대적 시간	허구실연적 시간	시대적 공간	허구실연적 공간
제 1 막 제 1장	제 1장 제 2장	1937년	밤	상해 공동조계	白系露人의 하숙집 응접실
제 2 막			며칠후		
(제 3 막 제 1장)			얼마후		
		(확인 불명)		(확인 불명)	

도식¹⁸⁾에서 본다면 텍스트는 1937년 상해 공동조계에 있는 白系露人이 경영하는 하숙집 응접실에서 며칠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텍스트의 시대적 시간과 공간에서 본다면 1937년은 노구교 사건으로 중일전쟁이 발발(7월 7일)하고, 중화민국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8월 21일)을 맺었으며,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 제 2차 국공합작(9월 22일)이 성립되었던 해이다. 1937년의 상해 공공조계¹⁹⁾는 중국인, 일본인, 러시아인, 영국인, 스웨덴인, 미국인 등의 순서로 인구가 많았으며,

18) 도식에서 시간-공간 표지는 무대실연을 준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며, 본고에서는 텍스트가 미완의 상태에 있으므로 시제 상연 시간과 실제 상연 공간은 생략했다.

시간의 3층위 : 시대적 시간 / 허구실연적 시간/ 실제 상연 시간

공간의 3층위 : 시대적 공간 / 허구실연적 공간/ 실제 상연 공간

소련 콧 아카데미 편집부 엮음, 김만수 역, 『희곡의 본질과 역사』, 제 3세계문화사, 1990, 10쪽.

19) 상해의 공동조계는 공공조계公共租界(Shanghai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오식이다. 공공조계는 1863년 영국조계(1845)와 미국조계(1848)가 합쳐진 결과이다. 이러한 공공조계의 사회적 특성은 다음 논문에서 상론하고 있다.

김성한, 「『海上花列傳』에 반영된 近代 上海의 租界」, 『중국어교육과정연구』(제 15호), 2012.5, 285-311쪽.

김태승, 「1930年代 以前, 上海 公共租界의 支配構造와 華人參政運動」, 『東洋史學研究』(58호), 1997, 83-113쪽.

이병인, 「모던 上海와 韓國人이 본 上海의 近代 1920~1937」, 『중국사연구』(85권), 중국사학회, 2013, 125-157쪽.

아편과 도박을 중심으로 한 소비 향락지역이었다.

일곱째, 등장인물표는 다음과 같다.

登 場 人 物		
마리아	(67세)	하숙주
소-나	(45세)	그의 며느리
타자-나	(21세)	그의 손녀
니코라이	(19세)	그의 손자
세르게이	(31세)	하숙인
크라코프	(80세)	하숙인 前 교수
유태인	(35세)	고물상
안드레이 백작	(53세)	아편중독자
페트루이깁	(50세)	이웃에 사는 백계로인
安 平	(25세)	항일 중국인
日本 憲兵 甲, 乙		
(安平, 유태인, 日本憲兵을 제외하고는 전부 백계로인)		

등장인물표에서 본다면 극적 인물은 하숙주와 하숙생, 백계로인과 비백계로인으로 나누어진다. 그 제시방식도 하숙주의 가족(백계로인), 하숙생(백계로인과 비백계로인)의 순서이다. 이러한 등장인물표의 짜임에서 본다면 텍스트는 하숙집을 운영하는 백계로인 가족을 중심으로 하숙생들, 일본 헌병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층위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텍스트는 이병주가 1945년 9월과 1946년 3월 사이 상해에서 창작한 최초의 희곡작품이며, 그 내용은 아편과 도박을 중심으로 한 소비 향락지역인 상해공공조계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러시아 가족들과 하숙생들, 일본 헌병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

2) 주텍스트의 사건 구조

부텍스트에서 제공하는 사건 내용에 관한 정보는 주텍스트에서 대사

로 실행되는 바, 그 사건을 줄거리마디를 준거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⁰⁾

- 1-1-① 하숙집 주인가족들과 하숙생들이 응접실에 둘러앉아서 귀가하지 않는 유태인, 안드레이 백작을 걱정하다.
- 1-1-② 안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피를 흘리며 숨겨주기를 원하자 마리아가 소냐에게 이층에 숨겨주라고 하다.
- 1-1-③ 세르게이가 수상한 사람을 집에 숨겨주면 화를 당하고 하자 마리아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보람이라고 하다.
- 1-1-④ 크라코프가 공산주의자에게 살해당한 아내와 아내 때문에 생명을 건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복수를 통한 조국회복운동론을 집필하고 있다고 하자 세르게이는 감정에 날뛰다가 자멸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인간답게 기르는 일이라고 하다.
- 1-1-⑤ 유태인과 안드레이 백작이 서로 간밤에 혼이 난 이야기를 하며 서로 욕설을 하다가 싸우다가 타자나의 노래로 멈춘다.
- 1-1-⑥ 크라코프가 푸시킨의 시를 낭송하자 세르게이가 그 낭송 때문에 타자나가 자기를 싫어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낙망을 한다.
- 1-1-⑦ 세르게이가 불러도 못 들을 채하면서 타자나가 마리아에게 끓인 물을 받아서 나간다.
- 1-1-⑧ 유태인이 침대에 빈대가 나온다고 하면서 방세를 깎으려고 하자 안드레이는 돈독이 올랐다고 하고 마리아는 세를 깎아준다.
- 1-1-⑨ 크라코프가 시를 낭송하며 가시 없는 장미라고 하자 마리아는 모두에게 잠을 자라고 권유하며 실내를 정돈한다.
- 1-1-⑩ 안이 일본에 항거하여 싸우는 중국 청년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며

20) 극적 사건은 장과 막으로 분할되며, 장과 막의 사건은 인물의 등퇴장이나 장소의 변화로 나누어진다. 전 4막 3장으로 짜여진 텍스트는 장소의 변화가 없으며, 등퇴장이 너무 길거나 짧게 일어나서 사건의 분할을 줄거리마디로 나눌 수밖에 없다. 줄거리마디란 전체 줄거리에 종속되면서 독립적인 의미 단위를 이루고 사건진행에 따라서 등장인물들 간의 상호관계가 형성되는 단위이다. 덧붙여서 본고에서는 예컨대 제 1막 제 1장 첫 줄거리마디를 1-1-①, 제 2막 제 2장 첫 줄거리마디를 2-2-①와 같은 방식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민병욱, 앞의 책, 122-123쪽.

숨겨준 것에 감사를 표하자 마리아는 편히 쉬기를 권한다.

1-1-⑪ 마리아는 실내를 다 정리하고 안, 크라코프, 타자나, 세르게이, 안드레이, 소냐, 니코라이를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린다.

2-1-① 타자나의 생일에 합창과 독창을 하면서 마리아, 페트루이깅 등이 덕담을 건넨다.

2-1-② 크라코프가 조국의 재건과 타자나를 조국의 희망이라는 축사를 하자 세르게이는 그만두라고 하면서 타자나에게 사랑을 호소한다.

2-1-③ 마리아가 세르게이와의 결혼을 권유하지만 타자나가 거부하고 크라코프는 타자나에게 왕자가 모시러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2-1-④ 크라코프는 장미꽃을 쪼먹는 버리지 같은 놈이라고 하자 세르게이는 남의 몸둥이리에 붙어사는 놈이라고 서로 욕하고 싸운다.

2-1-⑤ 크라코프와 세르게이가 싸우고 있는 가운데 유태인이 사고발생이라고 빈정거리고 타자나는 세르게이를 야만인이라고 한다.

2-1-⑥ 페트루이깅이 진주목걸이를 선물하자 타자나는 고마워하고 세르게이를 미워서 못 견디겠다고 한다.

2-1-⑦ 세르게이는 재작년까지 타자나가 자기 부인이 되겠다고 하고 그녀 가족들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자 마리아는 품으로 들어올 때까지 참으라고 당부한다.

2-1-⑧ 유태인과 안드레이가 물건을 훔친 것으로 서로 싸우자 마리아가 생일 축하연을 마친다고 한다.

2-1-⑨ 페트루이깅이 일본이 소련을 침공하는 계획에 동참하자고 하지만 니코라이가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세력이라고 응답하자 서로 빨갱이/앞잡이 개라고 하면서 다툰다.

2-2-① 안드레이가 아편 값을 구걸하자 세르게이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밀쳐버린다.

2-2-② 마리아가 타자나를 찾고 있는 가운데 세르게이가 자기가 사는 보람이 타자나와의 사랑에 있다고 하자 니코라이는 그 보람을 다른 데서 구하라고 한다.

2-2-③ 안드레이가 꽃병을 들고 나가려고 하자 마리아는 불쌍한 형제라고 동정한다.

2-2-④ 크라코프가 조국을 찾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밤을 자지 못하자 마리아가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잠자기를 권유한다.

- 2-2-⑤ 마리아가 타자나를 걱정하는 가운데 크라코프가 책이 완성되면 출판기념회를 열어 세계 각국 대통령을 초청하겠다고 하자 니코라이는 그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고 하면서 현직 대통령들이 선생님에게 취임인사도 하지 않았다고 하다.
- 2-2-⑥ 유태인이 안드레이가 페트루이깅에게 아편값을 빌리고 일본 헌병에게 돈을 받았다고 하자, 니코라이는 백계로인의 체면에 관계된다고 비난하다.
- 2-2-⑦ 안이 침략국 일본의 야만 행위로 도탄에 빠져도 희망을 잃지 말자고 하자 니코라이는 신념으로 목숨을 던져 나라를 구하려는 분이라고, 크라코프도 훌륭한 생각이라고 칭찬하다.
- 2-2-⑧ 일본 헌병이 문을 차고 들어와 안을 체포해 가고 마리아에게 헌병대로 출두하라고 하다.
- 2-2-⑨ 유태인이 안드레이를 밀고자라고 하고, 니코라이는 세계 평화와 조국 재건을 위하여 애국단체로 가겠다고 하자 마리아는 말린다.
- 2-2-⑩ 안드레이가 지폐 몽치를 들고 만용을 부리는 가운데 니코라이는 동족의 얼굴에 똥칠을 한 녀석이라고 하면서 민족의 체면과 사나이 보람을 찾기 위해 떠나겠다고 하자 마리아는 떠남을 환영한다.
- 2-2-⑪ 소나가 타자나가 행복을 찾아서 멀리 떠난다는 편지를 읽자 세르게이는 혼절해버린다.

이러한 줄거리마디에서 본다면 텍스트의 지배적인 사건의 축은 하숙집 경영주의 손녀 타자나와 세르게이 간의 사랑과 배반, 항일 중국인 안을 중심으로 한 조국재건의 희망과 절망이다.

첫째, 타자나와 세르게이 간의 사랑과 배반은 1-1-⑥, 1-1-⑦, 2-1-②, 2-1-③, 2-1-⑦, 2-2-②, 2-2-⑪에서 구체적 전개된다. 곧 이년 전(재작년) 타자나와 세르게이는 서로 부부가 되겠다고 하고 가족들의 축복을 받았다. 세르게이는 크라코프의 인하여 타자나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낙망을 한다. 세르게이는 사랑을 계속 호소하지만 타자나는 거부한다. 타자나는 행복을 찾아서 집을 떠나고 세르게이는 혼절을 한다. 곧 타자나와 세르게이 사이의 사랑은 크라코프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 그 결과

80세 전직 교수 크라코프와 스릿퍼를 제작하는 31세 세르게이 간의 갈등은 그치지 않는다. 크라코프와 세르게이 사이에는 동일한 체험을 공유하고 있다.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크라코프는 아내의 죽음을, 세르게이는 부모의 죽음을 경험한다. 공산주의자들에 한 가족의 죽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 갈등의 기본적인 원인은, 1-1-④에서 복수와 조국회복 운동/ 인간다운 삶과 아이들의 양육이다. 그 갈등은 서로의 화해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타자나와 세르게이 간 사랑의 거부로 나타난다.

소냐 (울음섞인 소리로 편지를 읽는다.) 사랑하는 할머니! 사랑하는 아주머니! 사랑하는 니코라이! 사랑하는 크라코프 선생. 저는 집을 떠납니다. 행복을 찾아서 멀리 떠납니다. 세르게이에게도 깨끗이 단념하라고 일러 주시고 저를 찾지 마시오. 그리고 ... 할머니! ... 너무 슬퍼 마옵소서 ... 제 마음은 항상 할머니 곁에 ... (중, 123쪽)

둘째, 항일 중국인 安을 중심으로 한 조국재건의 희망과 절망은 1-1-②, 1-1-③, 1-1-⑩, 2-1-⑨, 2-2-⑩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그 사건은 ‘안이 마리아에게 숨겨주기를 요청함→ 세르게이가 화를 당할 것이라고 염려하자 마리아가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소냐에게 安을 숨겨주라고 함→ 安이 일본에 항거하여 싸우는 중국 청년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며 숨겨준 것에 감사를 표하자 마리아는 편히 쉬기를 권함→ 일본의 소련 침공에 동참/거부를 놓고 페투르이깅과 니코라이가 빨갱이/앞잡이 개로 비난하면서 다툼→ 페투르이깅가 안드레이에게 아편값을 빌려주고 일본 헌병에게 소개함 → 니코라이가 세계 평화와 조국 재건을 위하여 애국단체로 가겠다고 결심함’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사건 전개는 세르게이와 소냐 간의 관계, 페투르이깅과 니콜라이 간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 安의 피신 요청에 대하여 세르게이와 소냐는 거부/수락으로 대립하면서 재작년에 이미 부부가 될 것이라는 언약을 깨뜨리게 된다. 피

신 후 安일의 항일 중국인이라는 자기소개는 니코라이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니코라이는 일본의 소련 침공에 동참하자는 페투르이킹을 앞잡이 개로 비난하면서 항일 운동단체에 참여할 결의를 더욱더 굳건하게 한다. 그의 할머니 마리아도 니코라이의 결의를 반대하다가 찬성하게 만든다.

첫째, 둘째에서 본다면 텍스트는 청춘남녀의 개인적인 사건과 항일운동의 참여/거부에 관련된 동시대 사회적 사건을 기본 축으로 하여 서로 얽혀 있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 애정사건과 동시대적 사회사건이 지배적 줄거리로 진행되다가 서로 얽히는 사건전개는 이병주의 문학세계, 특히 소설텍스트의 기본 구조²¹⁾를 이루고 있다.

3) 사건 구조와 인물 형상화의 대립 구도

개인적 애정사건과 동시대적 사회사건이 지배적 줄거리로 진행되다가 서로 얽히는 사건전개로 짜여진 텍스트에서 줄거리 전개의 주도자는, 등장인물표에서 제시된 마리아 가족이 아니다. 애정사건과 사회사건을 얽히게 하고 그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에게 영향을 주는 인물은 크라코프와 安이다. 곧 크라코프는 세르게이와 타자나를 헤어지게 만들고, 安은 니코라이를 항일 애국단체에 참여하게 만든다.

부텍스트의 등장인물표에서 제공되는 크라코프와 安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크라코프	(80세)	하숙인 前 교수
安 平	(25세)	항일 중국인
(安平, 유대인, 日本憲兵을 제외하고는 전부 백계로인)		

21) 이에 관련하여 선행 연구는 그의 역사(혹은 정치)소설에서는 역사의식, 역사인식, 정치성 등을, 대중소설에서는 애정관계, 사회적 모순 등을 주제로 하여 드러내고 있다. 역사(정치)소설이든 대중소설이든 그의 소설텍스트들은 개인적 애정사건과 동시대적 사회사건을 지배적 줄거리로 진행되다가 서로 얽히는 사건전개로 구성된다.

크라코프와 安은 백계로인과 중국인, 80세와 25세, 전 교수와 항일운동가, 하숙생과 비 하숙생 등 인종, 나이, 현재 상태 등에서 대립된다. 부텍스트에서 제공된 대립의 정보는 주텍스트에서 구체화 된다.

주텍스트에서 본다면 크라코프와 安은 다음과 같이 형상화된다.

	크라코프	安
과거 삶	○아내가 공산주의자들의 처형으로부터 자신을 살려 줌. ○아내가 공산주의자에게 살해 당함.	
현재 삶	○마리아 집의 하숙생 ○아내의 복수를 위한 조국회복 운동론을 집필하고 있음.	○일본 헌병에 쫓기어 마리아의 집에 피신하고 있다가 헌병에 체포되어 잡혀감. ○일본에 항거하여 싸우는 항일운동가
희망 사항	○책이 완성되면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이미 고인이 된 줄 모르고, 세계 각국 대통령을 초청하겠다고 함 ○조국 회복과 세계 평화	○일본의 침략 야만 행위로부터 중국의 독립
적대 관계	○러시아 공산주의자	○항일독립운동가

도식에서 크라코프와 安의 공통점은 비록 그 관계는 다르나 적대적 관계로부터 조국의 회복이다. 조국의 회복이라는 이상은 동일하지만 그 실천의 방법은 너무나 대조적이며 대립적이다. 크라코프의 삶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사건으로 회상되고 있는 반면, 安의 삶은 현재 사건의 진행이다. 희망 사항에서 본다면 크라코프는 환상에 간혀 공상주의자에 가까운 반면, 安은 현실 속에 있는 행동주의자이다. 곧 텍스트의 사건 전개와 얽힘은 공상주의자의 과거 삶과 행동주의자의 현재 삶에 의해서 작동된다. 과거/현재, 환상/현실, 공상/행동 등 대립적으로 형상화 된 인물들에 의해서 텍스트의 줄거리가 작동한다. 이런 의미에서 주텍스트의

사건 구조는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이 겹쳐 있고, 그 전개는 환상/현실, 공상/행동 등으로 이루어진다. 사건구조의 과거/현재 시간에 맞추어 환상/현실, 공상/행동 등으로 형상화된 인물들이 텍스트의 줄거리를 형성하고 전개해 나간다. 텍스트에서 보다 중심적인 것은 사건의 전체적 전개가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 가는 인물의 형상화이다. 텍스트는 사건 중심적인 구조가 아니라 인물 중심적인 구조²²⁾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희곡은 줄거리의 전개자로서 인물²³⁾이 행동하지만, 텍스트는 인물의 행동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텍스트는 사건 구조 보다는 형상화된 인물에 초점을 두고 창작된 것이다.

4. 결론 및 앞으로의 문제

본고는 선행 연구에서 그 제목만 언급된, 1959년 11월과 1959년 12월 『문학』에 (상), (중)으로 연재된 희곡 「유맹」의 자료를 발굴하고 텍스트의 발표, 수록과정과 구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대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가 수록된 『文學』의 발간은 ‘젊은 세대를 위한 젊은 세대에 의한 젊은이’의 문학잡지를 지향하고자 『新潮文學』의 정신을 이어받고 서울에서 발간된다.

둘째, 『文學』은 새로운 기법과 고도의 비평정신이 필요한 젊은 세대 문인들에게 문학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회화, 연극 등 모든 예술의 분야를 위해 예술 각 분야에 걸친 신예들의 무게 있는 작품들의 소개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희곡 「流氓」을 수록하여 연재한다.

22) 이러한 사건 구조가 다음의 논문에서는 그의 소설텍스트의 일반적인 구조이며 창작 방법론이라고 논증하고 있다.

김기용, 「이병주 중·단편 소설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석사), 2010.

23) 민병욱, 앞의 책, 194-198쪽.

셋째, 일제 강점과 남북 분단을 경험한 원로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문학 내외적 영역의 확장에, 『文學』의 ‘젊은 세대를 위한 젊은 세대에 의한 젊은이’의 문학잡지가 끼어들 틈이 없음은 물론이다. 문학(문단) 상황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기성 주도세력으로의 편입이다. 기존 문학 매체들이 문학이념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문학 권력을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文學』은 자진 폐간하고 희곡 「流氓」은 미완의 텍스트로 남게 된다.

넷째, 부텍스트에서 본다면 미완의 희곡 「流氓」은 이병주가 1945년 9월과 1946년 3월 사이 상해에서 창작한 최초의 희곡작품이며, 그 내용은 아편과 도박을 중심으로 한 소비 향락지역인 상해공공조계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러시아 가족들과 하숙생들, 일본 헌병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다섯째, 주텍스트에서 본다면 미완의 희곡 「流氓」은 청춘남녀의 개인적인 사건과 항일운동의 참여/거부에 관련된 동시대 사회적 사건을 기본 축으로 하여 서로 얽혀 있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 애정사건과 동시대적 사회사건이 지배적 줄거리로 진행되다가 서로 얽히는 사건전개는 이병주의 문학세계, 특히 소설텍스트의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다.

여섯째, 주텍스트에서 본다면 미완의 희곡 「流氓」은, 희곡의 일반적인 구성과 다르다. 희곡 「流氓」에서 중심적인 것은 사건의 전체적 전개가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 가는 인물의 형상화이며, 사건 중심적인 구조가 아니라 인물 중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희곡 「流氓」은 사건 구조 보다는 형상화된 인물에 초점을 두고 창작된 것으로서 그의 소설텍스트의 기본 사건 구조를 이루고 있는 창작방법의 출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文學』의 폐간으로 사라진 희곡 「流氓」(하)를 찾아서 텍스트를 복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텍스트의 전체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연구는 불가능하다.

참고문헌

- 『文學』 제 1호, 서울: 문학사, 1959.10.
『文學』 제 2호, 서울: 문학사, 1959.11.
『新潮文學』 제 1호, 부산: 신조문학사, 1958.5.
『新潮文學』 제 2호, 부산: 신조문학사, 1958.9.
민병욱, 『현대회곡론』, 삼영사, 2003.
이병주, 『虛妄과 眞實- 나의 文學的 遍歷』(下), 기린원, 1979.
정범준, 『작가의 탄생』, 실크 캐슬, 2009.
혜화학원 50년사 편찬위원회 엮음, 『혜화학원 50년사』, 부산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소련 콤포지트 아카데미 편집부 엮음, 김만수 역, 『희곡의 본질과 역사』, 제 3 세계문학사, 1990.
정상구 기념사업회 : <http://www.ktra.co.kr/sub02/sub04.asp>
한국학술정보원 : <http://www.riss.kr/index.do>
- 김기용, 「이병주 중·단편 소설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석사), 2010.
김성한, 「『海上花列傳』에 반영된 近代 上海의 租界」, 『중국어교육과정연구』(15호), 2012.5, 285-311쪽.
김태승, 「1930年代 以前, 上海 公共租界의 支配構造와 華人參政運動」, 『東洋史學研究』(58호), 1997, 83-113쪽.
남원진, 「반공국가의 법적 장치와 <예술원>의 성립 과정 연구」, 『겨레어문학』(38권), 겨레어문학회, 2007, 195-222쪽.
노현주, 『이병주 소설의 정치의식과 대중성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박사논문), 2012.
이병인, 「모던 上海와 韓國人이 본 上海의 近代 1920~1937」, 『중국사연구』(85권), 중국사학회, 2013, 125-157쪽.

-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상허학보』(30집), 2010.10, 397-454쪽.
- 이순욱, 「1950년대 정상구의 문학 활동」, 『문학도시』(42호, 부산광역시문인협회, 2005.9, 67-82쪽.
- 추선진, 「이병주 소설의 원형으로서의 『내일 없는 그날』」, 『인문학연구』(21권),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261-298쪽.

<Abstract>

A Study on Lee Byung-joo's dramatic text
Umeng(wandering people)

Min, Byung-wook

This paper research materials on the Lee Byung-joo's dramatic text *Umeng*. Also This paper explain the creation and structure of text together. The result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Dramatic Text was published by a literary magazine "*Moon Hak*"(Literature). *Moon Hak's* intention is of the young, by the young, for the young. And *Moon Hak* uphold the sprit of the *SinJo Moon Hak*.

2) Various and multiple works of art, for example Literature, paintings, drama, modern arts were printed in this magazine. So Lee Byung-joo's dramatic text *Umin* was printed, published.

3) At the time, the forces of vested interest in literary can not permit this magazine *Moon Hak* to take part in the world of Literature. This magazine *Moon Hak* intend to include the forces of vested interest in literary. Senior members of literary circles protect their vested rights and transfer is denied. A literary magazine *Moon Hak* is discontinued. The dramatic text *Umeng* become incomplete text.

4) In the sub textual aspect, *Umin* was the first dramatic work of Lee Byung-joo, was created in Shanghai from September 1945 to March 1946. The content is Opium and gambling among Russian

family, student boarder, Japan MP.

5) In the main textual aspect, *Umeng* was the case of the two Ravel. One is a personal affection of both sexes youth, the other is first and foremost,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movement rejected. The case of personal events and social entanglements is the basic structure of Lee's literary works. That is his creative methodology

The most important thing to the end is Incomplete restore of the text.

Key Words : Lee Byung-joo, Jung Sang-gu, Drama text Umeng, Moon Hak(Monthly magazine), Sin Jo Moon Hak, Busan, Shangi, 1955, 1959, Hundae Moon Hak(Monthly magazine), Ja U Moon Hak(Monthly magazine)

■ 논문접수 : 2015년 6월 27일

■ 심사완료 : 2015년 8월 10일

■ 게재확정 : 2015년 8월 20일